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 에코페미니즘과 시적 상상력

2010년 2월  
석사학위논문

에코페미니즘과  
시적 상상력

윤혜옥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윤 혜 옥

# 에코페미니즘과 시적 상상력

Eco-feminism and Poetic imagination

201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윤 혜 옥

# 에코페미니즘과 시적 상상력

지도교수 나 희 덕

이 논문을 문예창작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윤 혜 옥

# 윤혜옥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백    수    인      (인)

위      원      나    희    덕      (인)

위      원      오    문    석      (인)

200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차 례

1. 머리말 .....	1
2.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	3
1) 김혜순 : 카니발적 상상력 .....	3
2) 나희덕 : 생태적 상상력 .....	9
3) 김선우 : 신화적 상상력 .....	14
3. 나의 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	21
1)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생태적 인식 .....	21
2) 자연의 일부로서의 모성성에 대한 탐구 .....	25
3) 이주 여성을 통해서 본 문화적 생태주의 .....	28
4. 결론 .....	31
5. 첨부 작품 .....	34

제1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생태적 인식

대곡댐에서 .....	36
매곡동 .....	37
햇살도 비껴 앉는 오후 .....	38
文魚 .....	39
봄 .....	40
가을 .....	41
텅 빈 한낮 .....	42
석남사 가는 길 .....	43
푸른 숲 .....	44
바닷가 무덤 .....	45
건조한 날 .....	46
수로부인 가라사대 .....	47
기억해보세요 .....	48
길 .....	49

## 제2부: 자연의 일부로서의 어머니

흰나비 .....	51
백토 .....	52
축제 .....	54
종이 인형 .....	55
백암온천 .....	56
제라늄꽃 .....	57
낙타들의 휴식 .....	58
은목서꽃 .....	59
돌장승 .....	60
우로보로스 .....	61
가을 편지 .....	62
불꽃 .....	63
오월 .....	64
만숙이 .....	65
어디서 왔을까 .....	66

제3부: 이주여성을 통해서 본 문화적 생태주의

모音 ..... 68  
그녀의 바다 ..... 69  
보리라고 부르겠다 ..... 70  
류소화 ..... 71  
JESSIE ..... 72  
민들레 ..... 73  
그녀의 인사 ..... 74  
불투명 수채화 ..... 75  
코가 빛나는 건이 ..... 76  
맹랑한 꽃송이 ..... 77  
동화 -그 여자 ..... 78

참고 문헌 ..... 79



# ABSTRACT

## Eco-feminism and Poetic imagination

Yun Hye-Ok

Advisor : Prof. Ra Hee-Duk Litt. D.

Department of Literature Wri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oetic imagination from an eco-feminist view with its focus on the connection between ecologism and feminism. Ecologism and feminism is fundamental raising of a question about modern world views of logocentrism and phallogentrism and has an alternative nature against them. True ecological poetry contains respect for feminine value and true feminist poetry forms ecological relations with objects and language.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poems by Kim Hye-Soon, Ra Hee-Duk, and Kim Sun-Woo out of Korean women poets after the 1990s from an eco-feminist view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m. Then the poetry work of this author was analyzed in an eco-feminist view and creative poems were presented in the text.

Poems by Kim Hye-Soon, Ra Hee-Duk, and Kim Sun-Woo have similarity in the aspect of putting together each other in the cyclic order of nature and human beings and aiming at a life of coexistence, whereas they show some different imagination in the way of revealing femininity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concretely.

Poems by Kim Hye-Soon parallel strange images through the medium of a

body and pour the feeling of world by the imagination of carnival. On the other hand, poems by Ra Hee-Duk reveals the esoteric meaning of life by ecological imagination based on her observation of nature. Poems by Kim Sun-Woo shows a cyclic world view by mythical imagination which changes femininity into nature.

The poems of this author focus on the poetic motive of nature and mother in a cyclic world view and include cultural ecologism based on women migrants.

Femininity of the principle of life aiming at the life of tolerance rather than confrontation and death may be the root of woman literature and the matrix of new poetic imagination. Therefore, throwing off the myth of maternity covered with male-centered values and exploring poem writing acquired by oneself must be based on eco-feminist awareness that tolerates life and death, male and female, and human beings and nature.

# 1. 머리말

자본주의 가부장제 혹은 근대 문명은 현실을 구조적으로 양분하고 이 양자를 위계화하여 서로 적대시하는 우주론과 인류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은 인간에게 종속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소비는 생산에, 지역적인 것은 전지구적인 것에 종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들은 생명체와 문화의 다양성이 지니는 풍부한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대신 이를 분열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한다.

이에 대해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은 자연 속의 생명이 협력과 상호 보살핌, 사랑을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새로운 우주론과 인류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세계를 새로 짚다’, ‘상처를 치유한다’, ‘망(web)을 새로이 서로 연결한다’ 는 등의 은유를 사용한다.<sup>1)</sup>

에콜로지<sup>2)</sup>와 페미니즘<sup>3)</sup>의 결합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sup>4)</sup>은 자연의

---

1) 마리아 미스 ·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 · 이난아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00, pp. 14~16.

2) 1873년 독일 과학자 어네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생태학 ecology 명칭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생태학이라는 용어에서 에코eco의 어원은 ‘가정’ 또는 ‘가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나왔다.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다. (이귀우, 「에코페미니즘」, 『여성연구논총』 13호, 서울여대, 1998.)

3) 파괴된 자연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성 지향적 특성들이 더 부각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중심주의나 여성해방론적 관점이 바로 페미니즘(feminism)이며, 이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하나의 세계관이며 인식론적 관점이다. 페미니즘은 여러 소외 집단을 위한 사회운동, 반핵 운동, 소비자 운동, 시과학 운동, 생태주의 운동, 생명 존중 운동, 평화 운동 등의 신사회 운동과 연계되며, 이들을 포괄하는 학문체계로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페미니즘이란 용어의 어원은 여성과 여성적인 것을 나타내는 female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어 여성 중심적, 여성성 지향으로 여성 존중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류사회가 역사 이래 남성 중심적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은폐되고 왜곡되어온 여성의 활동과 삶을 우선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편파적인 용어에서 오는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 이 용어의 대안적 입장으로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 문화적 성을 나타내는 gender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 연구(gender study)라 명명하기도 했다. (안혜련, 『페미니즘의 거울』, 인간사랑, 2001. pp.27~28.)

4)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도본느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도본느는 1972년 “새로운 행동의 시작, 에코페미니즘”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1974년에는 『페미니즘인가 아니면 죽음인가』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에코페미니즘을 주요 개념으로 다루었다. 도본느는 사회적 문제와 환경문제를 연결하여 생각했다. 그녀는 성차별이 모든 계급제도와 인간착취의 근원이며, 인간착취가 자연 착취와 같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면서, 가부장제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를 환경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도본느가 시작한 에코페미니즘 논의는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 되었고, 여러 갈래로 분화 되었다. 당시 미국에서 마리 델리의 『여성과 생태주의』

파괴와 여성의 억압이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고 보며 자연 해방과 여성 해방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에코페미니즘은 생물적·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연관성을 생명의 기반이자 행복의 원천으로 본다.

한국의 경우 생태의식이나 생태적 상상력에 대한 논의가 문학 담론의 한 주류를 본격적으로 형성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물론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문학의 관심은 이전에도 있어왔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형상화되어 왔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생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생명 존재들에 대한 존중과 연민,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이 좀 더 분명한 방향성을 찾고 사회적·문화적 담론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최근 활발해진 에코페미니즘의 이론화 작업은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는 이성과 남성 중심의 근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진정한 생태시는 여성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고, 진정한 여성시는 대상과 언어에 대해 생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파괴와 여성에 대한 억압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 오기도 했지만, 시적 언어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어떤 장르보다도 생태적이고 여성적이기 때문일 것이다.<sup>5)</sup> 본인의 시 또한 여성으로서의 삶과 경험, 특히 어머니와 이주 여성들과의 체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에코페미니즘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 여성시인들 중에서 김혜순, 나희덕, 김선우의 시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적 상상력의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시인들의 시는 자연과 인간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서로를 아우르며 공존의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여성성과 생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혜순의 시는 몸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낯선 이미지들을 병치시키면서 카니발적 상상력으로 세계에 대한 느낌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에 비해 나희덕의 시는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언어의 침묵을 통과한 투명한 한 순간

---

(1978), 수잔 그리핀의 『여성과 자연』(1978), 캐롤린 머천트의 『자연과 죽음』(1980) 등은 에코페미니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 제43권 1호, 2001. p.39.)

5) 나희덕, 「생태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그리고 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비, 2003. p.117.

을 보임으로써 삶의 비의적 의미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본성을 자연성으로 환치시키는 김선우의 시는 신화적 상상력으로 순환적 세계관을 표현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혜순의 시를 몸을 통한 카니발적 상상력 측면에서, 나희덕의 시를 공존의 삶을 지향하는 생태적 상상력 측면에서, 그리고 김선우의 시를 순환적인 세계관이 관계하는 신화적 상상력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인의 시를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본인의 시는 공존의 삶을 지향하며 순환론적 세계관 속에서 자연과 어머니라는 시적 모티브들이 중심을 이루고 이주 여성을 소재로 한 문화적 생태주의의 측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과 친연성을 지니고 있다.

## 2.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 1) 김혜순 : 카니발적 상상력

여성의 몸은 가치관, 제도, 미덕이라는 이름 아래 가뒤편되고 억압되고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성차별이 새겨지는 장소이며, 남성과는 다른 생물학적 성차를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여성성의 발현지이기도하다. 따라서 여성 시인들의 몸을 통한 글쓰기는 사회적 발언임과 동시에 정체성 추구의 한 표현이다.

김혜순의 시는 세계의 풍경들을 인간, 특히 여성의 몸을 통해 보고 있으며, 현실과 환상이 아무런 매개도 없이 결합하는 환유적 언어로 구사되고 있다. 또한 그의 시들이 몸과 환유를 통하여 다양한 층위들과 서로 만나면서 그 위치가 전도되거나 변형되는 카니발적인 상상력<sup>6)</sup>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6) ‘카니발’과 ‘카니발화’로 대변되는 카니발적 상상력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러시아의 미하일 바흐친이다. 대화주의로 통하는 바흐친의 담론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카니발 이론이다. 바흐친에 따르면 문화를 수용자에 따라 공식적 문화나 고급 문화는 주로 지배 계층인 귀족 계급이 누리는 문화를 말하고, 비공식 문화나 저급 문화란 주로 피지배 계층인 민중이나 일반 서민 대중이 누리는 문화를 말하는데, 이 두 문화 사이의 대립이나 갈등은 중세기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다는 주장을 편다. 그에 의하면 중세기는 종교적이고 봉건적인 문화가 극한점에 달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이행된 시기였기 때문인데, 이 당시 피지배 계층의 저급 문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가 바로 카니발이었던 것이다. 이 시대에는 연중 무려 3개월에 달하는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이 카니발 행사가 당시 민중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바흐친은 이 카니발이야말로 ‘유쾌한 상대성’이 지배하는 세계관의 표출이라고 말한다. 바보가 현자가 되고, 왕이 거지가 되는 이 ‘유쾌한 상대성’이 있어서 서로 대립 갈등을

“여성 시인들이여. 우리에게 전통도, 선배도, 경전도 없다.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경전이다. 그러니 자신들의 몸이나 열심히 읽기를. 우리가 몸을 열었던 것이 남성에게가 아니라 에로스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아보라” 7) 김혜순은 말한다. 역사상 한 번도 주체인 적이 없으며 자신의 언어를 갖지도 못한 여성이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문제의식의 뿌리를 두고 자신의 시의 언술방식에 대해 치열하게 모색한다.

내 어깨를 타넘은 바람이  
발 디딜 곳을 못 찾고  
창졸간에 허방에 빠진다  
급히 불러오느라  
머리 위로 치마도 뒤집어쓰지 못한 바람이  
저 아래로  
다 쏟아져 들어간다  
원종일 손가락 들어  
이곳으로 오는  
길을 가리키던  
햇빛도 여기까지 와선 허방에  
단숨에 허방에 빠진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바람 아래 파도가 밤새껏 내게 묻는다. 땅 끝까지 달려온 풀들이 몇 개 안 남은 손톱으로 바람을 움켜쥐고 있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풀잎을 하나씩 쥐어뜯는다. 내 머리칼도 저 밑은 허방이에요 내 얼굴을 움켜쥔 채 악착같이 떠밀리지 않으려버린다. 머리 끝까지 차오른 눈물도 눈 속 뿌리를 꺾 잡고 눈동자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는다. 바람에 떠밀리던 그림자는 내 발목을 잡은 채 바람을 혼자 더듬어 내려가다가 더 이상은 안 돼요 멈춰 있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파도는 숨골 속을 두드리고 차가운 별이 눈물 심지에 가끔씩 부딪힌다. 밤늦도록 바람에서 파란 인광을 내뿜는 내가 모르스 부호처럼 깜빡거린다.

— 「 바람에서」 8)전문

---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뒤섞여 화해와 혼용의 상태로 어우러지며, ‘제2의 삶’을 영위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창근, 「현대시와 포스트 모더니즘」, 『동의어문논집』 제11집, p.29.)

7)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p.6.

8) 김혜순,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이 시는 내면에서 돌아나는 욕망을 향한 문장으로 들끓어대는 긴장의 극점을 향하고 있다. 벼랑 아래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고, 벼랑 위에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기는 안간힘 또는 길항하는 힘이 이 시의 견고한 긴장의 뼈대가 된다. 극단적 긴장의 순간을 들끓어대는 욕망의 순간으로 보여주는 「벼랑에서」는 김혜순의 시가 세계에 대한 치열한 응전의 과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서 벼랑은 몸으로 비유된다. “내 머리칼”은 허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려 “내 얼굴”을 움켜쥔다. “눈물도 눈 속 뿌리를 꼭 잡고 눈동자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으려 한다. “그림자는 내 발목을 잡은 채 벼랑을 혼자 더듬어 내려가다가 더 이상은 안 돼요” 한다. 그림자는 “멈춰 있다.” 몸이 벼랑이고 벼랑이 몸이다. 몸은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고 출구이다. 세상을 향해 있는 마지막 출구로서 몸은 벼랑의 끝이다. 몸은 세계를 구체적인 느낌의 터로 만들어주는 공간인 것이다. 몸 밖으로 나가려는 얼굴을 움켜쥔 머리카락과 눈물과 그림자는 몸을 움켜쥐고 있다.

김혜순은 세계를 감각과 몸의 현상으로 내재화한다. 시인에게 지각되는 세계는 신체적 경험으로 등장하며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몸은 세계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세계는 몸과 소통하기를 시작한다. 세계에 대한 느낌을 신체로 환원할 때 세계는 가장 주관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세상은 몸 안에서 다시 낫설고 생경해진다.

‘몸으로 글쓰기’는 김혜순의 방식으로 완성된다. 남성 전유물로서의 언어를 비틀어 비유하기는 결국 신체를 비틀어 해체하기와 대칭적으로 맞닿아 있다. 카니발적인 상상력으로 몸과 세계가 에코페미니즘과 접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거울을 열고 들어가니  
거울 안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거울을 열고 다시 들어가니  
그 거울 안에 외할머니 앉으셨고  
외할머니 앉은 거울을 밀고 문턱을 넘으니  
거울 안에 외증조할머니 웃고 계시고  
외증조 할머니 웃으시던 입술 안으로 고개를 들이미니  
그 거울 안에 나보다 젊으신 외고조할머니  
돌아앉으셨고

그 거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들어가니  
 또다시 들어가니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울 속에  
 모든 윗대조 어머니들 앉으셨는데  
 그 모든 어머니들이 나를 향해  
 엄마엄마 부르며 혹은 중얼거리며  
 입을 오물거리려 젖을 달라고 외치며 달겨드는데  
 젖은 안 나오고 누군가 자꾸 창자에  
 바람을 넣고  
 내 배는 풍선보다  
 더 커져서 바다 위로  
 이리 동실 저리 동실 불려다니고  
 거울 속은 넓고넓어  
 지푸라기 하나 안 잡히고  
 번개가 가끔 내 몸 속을 지나가고  
 바닷속에 자맥질해 들어갈 때마다  
 바다 밑 땅 위에선 모든 어머니들의  
 신발이 한가로이 녹고 있는데  
 청천벽력  
 정전. 암흑천지.  
 순간 모든 거울들 내 앞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며  
 깨어지며 한 어머니를 토해내니  
 흰웃 입은 사람 여럿이 장갑 낀 손으로  
 거울 조각들을 치우며 피 묻고 눈감은  
 모든 내 어머니들의 어머니  
 조그만 어머니를 들어올리며  
 말하길 손가락이 열 개 달린 공주요!

— 「딸을 낳던 날의 기억」 9)전문

이 시에서 ‘거울’은 자기 반영적 의미를 넘어서 있다. 시인은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거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다’. 시인이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이다. 즉 시인은 거울을 통하여 어머니의 딸인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자신을 본다. 그리고 시인은 거울을 통하여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

9) 김혜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문학과지성사, 1985.



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어머니를 만난다. 거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갈 때마다, 시인은 모든 윗대조 어머니들을 거듭거듭 만난다. 그렇게 거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날수록 시인은 딸에서 벗어나 어머니가 되어간다.

‘거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자의 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거울이 열리는 깊이는 산고의 깊이, 자궁의 열림과 비례한다. 몸의 열림이 깊어지면서 시인은 더 먼 윗대의 어머니들까지 만난다. 그리고 고통의 극점의 순간에 딸을 낳는다. 그 생명을 시인은 “조그만 어머니”라고 말한다. 딸을 낳음으로써 딸이었던 여성은 어머니가 된다. 따라서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유대감, 똑같이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살아야 하는 동반자 관계로 변화한다.

이렇듯 분만은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머니가 일깨워지는 순간이며, 그 자신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며, 어머니로 표현되는 여성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다. 결국 자신이 낳은 딸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에 ‘딸’은 ‘조그만 어머니’인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은 자연의 영원성과 일치된다.

김혜순은 말한다. “…… 여성시인이므로 어머니인 내가, 다시 흐르는 자로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흐르는 자는 어머니라는 은유적 고정성을 벗고 끊임없이 타자에서 타자로 흐른다. 반복되는 출산의 경험 속에서, 시니피양들의 연쇄 속에서 은유적 고정성을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우주의 은유가 아니라 별들끼리의 환유의 접촉이다. 어머니는 환유적 유체다. 어머니는 단지 흐르는 시적 화자의 우발적인 인접성이다. 「딸을 낳던 날의 기억」같은 나의 몸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글쓰기의 기초가 된다.”<sup>10)</sup> 이 시에서 시어들의 환유적 연결은 카니발적 상상력을 유발한다.

어쩌면 좋아요

고래 뱃속에서 아기를 낳고야 말았어요

---

10) "나의 아이는 나의 어머니들의 아이면서, 동시에 나이면서, 나의 어머니들이다. 아이는 나의 타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낳은 나이다. 아이는 나의 타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낳은 나이다. 아이는 태어남으로써 나를 타자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 출산을 통하여 어머니 되기와 아이 되기를 동시에 달성한다. 나는 출산을 통해 '몸'이 된다. 몸됨으로 나는 나를 벗어나 타자가 된다. 또한 '내'가 된다. 이것이 내가 내 시들에서 무수한 타자들과 맺는 나의 관계 맺기 방식이다. 나는 한 타자를 넘어서 다른 타자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와 함께 거미줄을 짜나가는 것이다." 라고 김혜순은 말한다.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4, p.171.)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사랑을 하고야 말았어요  
어쩌면 좋아요  
당신은 나를 아직 다 그리지도 못했는데  
그림 속의 내가 두 눈을 달지도 못했는데

그림 속의 여자가 울부짖어요  
저 멀고 깊은 바다 속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그 여자가 울어요 그 여자의 아기도 덩달아 울어요  
두 눈을 뜨고 당신을 보지도 못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오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게 분명하지요?  
그러니 자꾸만 당신이 보고 싶지요)

오늘 밤 그 여자가  
한번도 제 몸으로 햇빛을 반사해본 적 없는 그 여자가  
덤불 같은 스케치를 뒤집어 쓰고  
젖은 머리칼을 흔드나 봐요  
이파리 하나 없는 숲이 덩달아 울고  
어디선가 보고싶다 보고싶다 함박눈이 메아리쳐와요

아아, 어쩌면 좋아요?  
나는 아직 태어나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아직 두 눈이 다 빗어지지도 못했는데

— 「그녀 요나」<sup>11)</sup>전문

성경 속의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자기를 보존하지만 김혜순의 ‘요나/그녀/나’는 고래 뱃속에서 아기를 낳아서 타자를 생성한다. ‘그녀/‘요나/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사랑을 한”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은 카니발적인 역설은 김혜순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타자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삶을 극화한 결과다. 여기서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는데”라는 구절은 존재의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을 뜻한다. 남성의 정체성이 고정된 질서를 통해 구현되는 것과 달리, 여성의 정체성은 변화와 혼돈 속에서 유동적으로 확보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

---

11) 김혜순, 『한 잔의 붉은 거울』, 문학과지성사, 2005.

에서 여성은 시간의 역전과 혼재를 삶의 선형적인 조건의 하나로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일회적인 시간이 아니라 순환하는 시간, 그러나 같은 궤도를 절대 그리지 않는 프랙탈의 시간으로 그것들을 맞이한다. 자신의 몸 안에서 뜨고 지면서 커지고 줄어드는 달처럼 죽고 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본다. 그러기에 여성의 몸은 무한의 프랙탈 도형이다. 이 도형을 읽는 방법으로 여성은 생명이 나가고 흘러드는 길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 산다.

여성이 몸을 여는 것은 남성에게가 아니라 에로스라는 컨텍스트에게이다. 이 사랑은 태곳적부터 여성의 몸에서 넘쳐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유한 실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 실존의 실체는 고정된 도형이 아니라 움직이는 도형으로서의 실체다. 늘 순환하는. 그러나 같은 도형은 절대 그리지 않는. 그리하여 무수한 사물들을 살려내고 당대를 깨어나게 하는 것<sup>12)</sup>이라고 김혜순은 말한다. 여기에서 자연과 여성의 몸을 단일하게 바라보는 여성성을 만날 수 있다.

## 2) 나희덕: 생태적 상상력

나희덕의 시는 생명의 본원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면서 문명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상처와 균열을 치유하고자 한다.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선택보다는 공존의 땅이 본래적 질서라고 나희덕은 말한다.<sup>13)</sup> 그런 점에서 시인은 상처를 넘어서려는 ‘치유력’과 더불어 분열을 넘어서려는 ‘역동성’을 지닌 색으로서 보라색의 균형감각에 주목한다.<sup>14)</sup>

그래서인지 나희덕의 시에는 형벌이면서도 구원일 수밖에 없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세계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헌신<sup>15)</sup>이 드러난다. 원형적인 모성성을 상징하는 여신 데메테르의 할머니이기도 한 가이아는 지구의 생물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주는 자비로운 여신이다. 실제로 가이아라는 말은 지구나 대지를 뜻하는 그리스어이며, 지구와 대지는 어머니처럼 생명을 만들고 또 기른다.

12)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p.233.

13) 나희덕, 『반통의 물』, 창비, 1999, p.25.

14) 나희덕,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비, 2003, p.59.

15) 유성호, 「그의 귀에 들리는 어스름의 소리들」, 『어두워진다는 것』 발문, 창비, 2001. p.104 참조.

고추밭을 걷어내다가  
그늘에서 늙은 호박 하나를 발견했다  
뜻밖의 수확을 들어 올리는데  
흙 속에 처박힌 달디 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신공양을 위해  
타닥타닥 타고 있는 불꽃같기도 했다  
그 은밀한 의식을 훑쳐보다가  
나는 말라가는 고춧대를 덮어주고 돌아왔다

가을갈이를 하려고 밭에 다시 가보니  
호박은 온 데 간 데 없다  
불꽃도 흙 속에 찾아든 지 오래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잘 마른 종잇장처럼 땅에 얹드려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죽음을 덮고 있는  
관뚜껑을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 움큼 남아 있는 둥근 사리들!  
— 「어떤 출토」<sup>16)</sup>전문

늙은 호박 덩이가 어머니처럼 지구의 생물들을 보살피 주고 있다. 종잇장 같은 호박 껍질을 보며 짜글거리는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소신공양을 상상한다. 자연은 순환한다. 호박은 햇볕과 수분, 흙 속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란다. 다 자란 호박은 사람의 식량이나 벌레의 먹이가 된다. 모든 생명체는 비슷한 과정을 밟으며 태어나서 사라져간다. 시인의 생태적 상상력은 벌레가 호박에 매달려 먹는 모습에서 어머니의 젖을 연상한다. 자연 속의 영양분을 마시며 성장하고, 다 자란 호박은 다시 호박씨를 남기며 자연으로 돌아가는 상생의 법칙이 있다. 생태에 대한 합일의 정서를 늙은 호박덩이를 통하여 화자는 교감하고 있다.

이처럼 나희덕의 시는 곧잘 대부분 모성성이라는 말로 설명되지만 시인 자신은 모성성이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현실의 불모성을 건너는

---

16) 나희덕, 『사라진 손바닥』, 문학과지성사, 2004.

다리<sup>17)</sup>라고 말한다. 나희덕의 시에서 모성성이 강하게 발현되는 순간 역시 그런 불모적 상황에 처했을 때였으며,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위기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소금창고에서 나와 그을린 얼굴로  
터벅터벅 집에 돌아온 여자,  
지친 몸속에서 불었던 젖을 꺼내  
아기에게 물린 채 그만 잠들어버린  
그녀, 다음 날 새벽  
품속에서 숨이 막혀 죽은 아기를 안고  
매맞는 그녀, 몰매기 몰매기  
아이들은 뒤따라오며 돌을 던졌네.  
내가 돌을 던진 건 아닌가 싶어  
예이츠의 그 시가, 아니 그녀가  
오래도록 기억을 떠나지 않았네.

이제 나 종일 발을 갈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문득 몰매기인 나를 보네.  
젖무덤 아래 울고 있는 아기를 보네.  
말이 돌이 되기도 하고  
눈빛이 돌이 되기도 하고  
손잡음이 돌이 되기도 하여  
내 앞에 떨어지는데, 깨진 무르팍  
몰매기의 상처는 그 흐르는 피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아야 하네,  
흐르는 피를 닦으며 그냥 그냥  
발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발에는 그렇게 많은 돌들이 박혀 있다는 것을  
— 「몰매기를 기억함」<sup>18)</sup>전문

이 시는 현실의 불모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금창고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지쳐 돌아온 몰매기가 불었던 젖을 아기에게 물린다. 아기가 자기의 젖에 숨 막혀 죽은 줄도 모르고 잠이 든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

17) 나희덕, 『보랏빛은 어디서 오는가』, 창비, 2003. pp. 62-69.

18) 나희덕, 『그 말이 앞을 물들였다』, 창작과비평사, 1994.

으면서 돌을 맞으면서 쫓겨 가는 몰매기. 생명의 원천이어야 할 젖이 오히려 아기를 죽게 하는 현실. 그 사실은 모성의 고갈과 황폐를 넘어 세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일하는 여성과 어머니라는 그녀가 처한 환경의 이중성은 몰매기에게 이중의 제물이 되기를 요구한다. 살인자가 될 것과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시인은 지금도 그렇게 많은 돌들이 박혀 있는 황무지에 어머니들이 서 있는 불모의 현실의 비극성을 직시하고 있다. 모성성을 상징하는 여신 데메테르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지만은 않았다.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는 그녀의 저주로 대지는 황량한 죽음으로 변하고 만다. 모성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어머니는 오히려 절망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나희덕의 시에서는 아침과 저녁이라는 시간대가 이중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혼돈과 분열의 시간을 겪는 아침의 시간대와 안정감과 자아 인식을 가능케하는 저녁의 시간대가 그것이다. 해가 뜬 시간이 아기와 가정을 떠나는 불안의 시간이라면 어두운 황혼녘의 시간은 안정과 평안의 시간이 된다.

밤구름이 잘 익은 달을 날고  
달이 다시 구름 속으로 숨어 버린 후  
숲에서는……툑……툑……타닥……  
상수리나무가 이따금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  
제 열매를 던지고 있다  
열매가 저절로 터지기 위해  
나무는 얼마나 입술을 둥글게 오므렸을까  
검은 숲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말소리,  
나는 그제야 알게도 된다  
열매는 번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무가 말을 하고 싶은 때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타다닥……따악……툑……타르르……  
무언가 짧게 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박수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들은 무슨 냄새처럼 나를 숲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나 어둠으로 짙은 가을 숲에서  
밤새 제 열매를 던지고 있는 그의 얼굴을  
끝내 보지 않아도 좋으리

그가 던진 둥근 말 몇 개가  
걸어가던 네 복숭아뼈쯤에 ……탁……굴러와 박혔으니  
- 「저 숲에 누가 있다」<sup>19)</sup>전문

생태적이라는 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자연이다. 생태주의는 우리에게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던 태도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며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라고 권유한다. 또 거대한 그물망과도 같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되찾기 위한 실존적 노력을 강조하기도 한다. 생태적 상상력과 달리 역사적 상상력은 자연 해방보다 인간을 강조하고 그것이 실현될 미래의 한 시점을 기다린다. 이렇듯 생태적 상상력과 역사적 상상력은 자연에 대한 태도에 있어 사뭇 대조적이다.<sup>20)</sup> 이 시에서 생태에 대한 시적 관심은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믿음과 낭만성이 드러나는데 있다.

어두운 숲이 내지르는 소리를 “그가 던진 말 몇 개”로 읽고 있다. 사물의 움직임을 청각을 통해 인식하는 시인은 물 흐르듯 스쳐지나갈 자연의 소리들을 예리한 주체의 감각으로 받아들인다. 자연을 통해 삶의 질서와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한 자연 훼손으로 점점 복원 불가능하게 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좁혀주고 있다.

이 시는 마치 어둠으로 가득 찬 가을 숲의 신비한 정령과의 대화를 보는 듯하다. 숲은 그 열매가 터지고 떨어지는 소리로 그 고요를 전파한다. 고요 속에서 문득 들려오는 “탁……탁……타닥……” 소리는 소통하기를 원하는 나무의 말소리 같기도 하다. 한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와의 교감, 교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어둠의 가을 숲을 향해 걸어가는 시인의 모습은 감성적인 것에서 초감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운동의 과정이다. 마치 초월의 한 이행과정을 밟는 것 같다. 나희덕의 시는 미지적인 것, 부재하면서 암시적인 것, 불가능한 것에 대한 회구를 진행시킨다.<sup>21)</sup> 그것은 나희덕이 삶의 구도적 탐구를 통해 사물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가 닿으려는 과정이다.

이 시는 소리보다 침묵을, 보이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탁…… 탁…… 타닥……” 소리는 한 번씩 일어나고 다시 침묵한다. 숲은 역설적이게도 고요를 전파하기 위해 말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들의 고요한 알 수 없는 소리들은 무엇인가를 지칭하기를 거부하는 애매모호

19) 나희덕, 『어두워진다는 것』, 창작과비평사, 2001.

20) 나희덕, 「생태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그리고 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비, 2003, p.118.

21) 김용희, 「조울과 포복」, 『페넬로페의 옷감짜기』, 문학과지성사, 2004, p.122.

함을 드러낸다. 무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안정된 체계로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발레리는 이 애매모호함을 초월성이라고 했다. 초월은 주어진 삶의 부분성과 범속성을 전체적이고 고양된 이면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나희덕의 시는 어떤 초월을 보여준다. 시인은 사물을 명명하지 않고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의 전체성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툑……탁……타닥…” “무슨 소리” “무슨 냄새” 심미적 대상을 대상화하는 암시의 힘이기도 하다. 그것은 “끝내 보이지 않아도 좋”은 삶의 온전한 총체적 지평이다. 어두운 숲으로의 산책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터트리며 세계와 주체가 만나는 여정이다. 회귀라는 존재론적 운동을 하는 것이다. 나희덕의 시는 내면성의 시라 할 수 있다. 내면성이란 세상을 인상으로 구성해내는 주관적 인식의 과정만이 아니다. 객관적 재구성의 과정이다. 내면과 외면의 변증법적 교환이라 할 수 있다. 시적 과정은 이러한 내면화의 과정이다. 명경지수明鏡止水의 이미지처럼 세계를 비추는 마음을 형상화해내는 것이다. 즉, 세계를 주관화, 내면화한다기보다 세상이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낸다

나희덕의 시는 세계를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 자체로 빛이자 어둠인 삶을 통째로 부동켜안는다. 저마다의 본성에 충실한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자연의 시각으로 다가간다. 생태적 친연성과 대지의 모성성을 기반으로한 생태적 상상력을 보이는 그녀의 시는 억압과 희생과 지배와 폭력이 아닌 등을 다독이는 따뜻한 어미의 시선으로 공존의 삶을 지향한다.

### 3) 김선우: 신화적 상상력

여성성이 생명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명력, 창조력으로부터 발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생명을 보듬고, 키워내고, 지켜내려는 생명을 향한 열망은 여성성의 본질이다. 생명을 낳고 기른다는 점에서 자연과 여성은 같다. 여성성은 자연과 여성을 단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중심개념이다. 생태적 원리로서의 여성성은 우주와 세계가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순환적 관계 속에 모든 부분들이 얽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sup>22)</sup>을 말한다. 순환적인 세계관을 통해 재현되는 신화적 상상력<sup>23)</sup>은 김선우 시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22) 이희경, 「여성시의 생태적 상상력」, 『한국언어문학』, 제50호, 한국언어문학회, p.396.

23) 원시 종합예술에서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것은 주술사 즉 무당이였다. 이들은 신의 말을 인



시적 모티브가 되고 있다.

무 송송 썰어 고등어 찌개를 끓이고 물김치 한 보시기 가득 떠놓으니 된장에 박은 장다리 생각 고향 뜨락을 넘어간다 여운 햇살에 웅기들의 싸근거리는 낮잠 “저것들도 숨쉬고 있어야!” 만삭의 기억을 쓸어안으며 환갑의 어머니 들창을 여신다.

아흠 자식의 어머니는 연중 아흠 달 사리돈을 씹는다. 형상 기억할 금소재의 브래지어를 빨다가 나도 문득 아랫도리가 아팠던 적이 있다. 비틀어 짜 말려도 원상태로 돌아오는 둥근 가슴에 대한 기억…… 유산의 기억 이후 파드득, 나의 그곳을 헤치며 날아가는 새는 어디에 머물다 해마다 다시 깃들여 오는 걸까

어머니의 앞췌에 꽂혀 있는 돛바늘, 이제 그 바늘 좀 뽑아 버리라고, 짜증을 내다 고등어살을 뜯어 손가락에 얹어드린다 “거꾸로 들어 두 시간이나 길을 찾더구나 네 길이 내 몸속엔 없는 줄 알았다” 둥글고 따듯하던 양수의 기억, 나는 좀 더 머물고 싶었는지 모른다

“널 갖고 복숭아가 미치게 먹고 싶었어야” 복숭아를 깎아 무른 쪽을 집어드린다 달칵거리는 틀니 “저물었어야, 장독을 덮어야지 저녁진지 드실 시간이구마” 팔년 전 돌아가신 조부님 진지 드리러 어머니 황망히 문간을 나선다 대관령 고갯길에 나누끼는 옷췌, 복숭아 열매가 둥글게 자라는 건 열매가 갖고 있는 기억 때문이다.

— 「 둥근 기억들의 저녁」 24)전문

이 시의 화자인 딸은 저녁상을 차려 먹으면서 문득 고향집 어머니 생각을

---

간에게 전함으로써 부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무당이 전하는 신성이 언어는 자연현상과 우주를 창조한 제3의 세계이며 자연의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들 언어는 각각의 상징성을 띤다. 그러므로 신의 말을 인간의 언어로 만드는 제의(祭儀) 과정은 상징으로 가득찬 세계일 수 밖에 없다. 이 세계는 무당 다시 말해 시인의 입을 통해 발현되므로 시의 시원(始原)이 된다. 상징으로 가득찬 신화의 체계에서 신화의 상징들이 의미하는 이미지는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창출해냄으로써 의미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한다. 이 때, 원형적인 이미지는 그것에서 파생된 수많은 이미지들로 인해 ‘무엇을 말하는 것’ 이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신화가 살아있는 인간을 그의 생활 주기와 조화시키고, 그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화시키고, 이미 그 자체가 환경의 일부가 되어 버린 사회와 조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 조영미, 「신화를 모티브로 한 시 쓰기」, 『한민족문화연구』, 제1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4. pp.222~223.)

24) 김선우, 『내 혀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창비, 2000.

한다. 무의 둥근 단면을 들여다보며 고향집을 생각하고 물김치 한 보시기 가득 떠놓다가도 고향집 기억이 떠오른다. 그 기억들은 주로 “무” “옹기들” “만삭의 배”와 같은 둥근 이미지들을 주조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사리돈” “브래지어” “둥근 가슴” “장독” “복숭아” 등으로 부화한다. 여기에서 둥근 이미지들은 신화의 원형적인 이미지인 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달의 형상이 둥근 이미지들과 같은 것으로 달과 여성은 하나가 된다.

또한 화자가 떠올리는 일상의 단편들은 단절된 파편의 기억들이 아니라 연결되고 반복되는 일상들이다. 시집간 딸이 저녁을 짓고 있는 일상은 언제나 되풀이되는 어머니의 일상과 연결된다. 경험은 반복의 의미를 내포한다. 아홉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연중 아홉 달 사리돈을 씹으며 두통을 참는다. 딸은 유산을 하고 아랫도리가 아프다. 어머니와 딸의 경험은 대응을 이루며 일치한다, 일상과 경험이 반복,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체험이 연속선상에서 어머니와 딸은 만난다. 한 생애는 다시 반복된다. 경험은 되풀이된다. 순환은 우주의 원환성을 환기시킨다.

부권제 질서는 저 너머의 내세에 기반을 둔다. 부권제는 다음의 세계를 위해 현세에서 끝없이 진보해가야 할 것을 명령한다. 진보에 대한 지불 대가인 투쟁과 경쟁으로 인한 낙오감, 패배감을 요구한다. 모계 전승은 대지와 우주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교환’을 전제한다. 모계는 여성으로서의 너와 나, 서로 낳고 서로 키우는 교환과 관계성의 메커니즘을 순회한다.<sup>25)</sup>

어머니는 딸을 낳을 때 복숭아를 먹었다. 어머니는 딸이 깎아주는 복숭아를 먹으며 다시 딸을 낳는다. 딸은 어머니에게 복숭아를 먹인다. 어머니를 자기 품의 아기처럼 다시 키우고 있다. “널 갖고 복숭아가 미치게 먹고 싶었어야”에서 ‘싶었어야’는 친구 사이의 친근감을 환기시킨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 낳고 서로 키우는 교환의 통풍창이다.

아홉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아홉 번이나 자기 분재를 경험한다. 경험을 태아와 공유한다. 어머니는 또 다른 딸을 만들어간다. 자기의 몸을 먹히게 하면서 자기를 다시 형성해 간다. 죽음은 생명을 잉태한다. 생명은 죽음을 담보하여 교환을 이루어간다.

시에는 달힘과 열림, 나감과 들어옴의 반복이 있다. 달혀 있던 기억의 들창을 연다. 장독 뚜껑을 열었다 달는다. 달힘과 열림, 나감과 들어오는 것 사이에 문이 있다.

---

25) 김용희, 『페넬로페의 웃감짜기』, 문학과 지성사, 2004, p.92.

어머니의 둥근 가슴을 감싼 앞섶에 뚫바늘이 있다. 앞섶은 어머니 가슴의 문이다. 그러나 뚫바늘을 뽑으면 언제나 어머니의 가슴은 열린다. 시에서 둥글게 닫혀 있는 모든 것들은 열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머니는 죽음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 돌아가신 조부님 진지를 챙기기 위해 문간을 나서는 어머니는 조상들이 떠나신 길을 순순히 뒤따라 나선다.

어머니가 씹어대는 알약과 비틀어진 브래지어의 형상은 일그러진 원을 형상화한다. 일그러진 가슴이다. 채 부화되지 못하고 품을 떠나버린 새는 생명과 죽음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새는 떠나감으로써 사라지지만 또다시 해마다 “내” 게로 깃들인다. 생명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회귀성은 둥근 가슴의 기억으로 처리된다. “비틀어 짜 말려도 원상태로 돌아오는 둥근 가슴” 비틀어져도 다시 원형대로 돌아오는 브래지어의 원심회귀의 기억이다. 제목에서 ‘기억들’이라는 복수성은 둥근 것들이 회귀하고 겹쳐짐을 의미한다. 포개어지고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으로서의 나의 몸은 새가 돌아오고 떠나기를 되풀이하는 동지이다.

기억은 ‘몸의 기억’으로 남는다. 화석처럼 몸에 낙인 찍혀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식되어 있다. 이 시는 몸의 기억을 통해 딸도 어머니처럼 또 다른 둥근 존재를 잉태하는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복숭아 열매가 갖고 있는 형질처럼 딸 속에도 어머니의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신화적 상상력은 달의 소멸과 재생이 여성적인 둥근 이미지들과 동일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의 기억을 통한 형질들은 구체적인 이미지의 육화로 나타난다. 69로 대변되는 에로틱한 세계 안에서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모든 것이 무한히 순환되는 시를 보자.

오랜만에 고향집 안방에서 한 낮을 백년처럼 뒹구는데 까출하고 굽실한 희끗한 터럭 하나, 집어 들고 햇살 속에 이윽히 뜯어보니 이것은 분명 그곳의 터럭 어머니의 것일까 아버지의 것일까 오래 전 돌아간 조부모의 그것이 장롱 밑에 숨었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햇볕 쬐이러 시남시남 나와본 걸까 희끗한 터럭 집어들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사이에 마음이 뜨끈하게 여울져오고 별안간 이 오래된 삼신할미 같은 방이 새근새근 더운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는 거라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방이 무덤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르더니만 사방이 69 천지인 거라 방구들과 천장의 69, 전등과 전등갓의 69, 문틀

과 문의 69, 한 시와 두 시의 69, 이불과 요의 69, 자음과 모음의 69, 모서리와 벽의 69, 두 시와 세시의 69, 얼룩들의 69, 얼룩이 얼룩을 낳고 얼룩이 얼룩 속에 제 몸을 비벼넣으면서, 쥐오줌과 곰팡이꽃의 69, 손가락과 국그릇의 69, 주춧돌과 두꺼비집의 69, 옛날 옛적 산이었던 이 터와 지붕 얽힌 것들의 69, 죽은 것과 산 것들의 69, 어머니 태 속의 나와 어머니의 69

그러고는 이 삼신할미 같은 방이 맨 나중으로 펼쳐 보여준 것은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69였는데, 흰머리 성성한 어머니가 외할머니 젖을 빨듯, 시든 아버지가 할머니의 젖을 빨듯, 이상하게도 자분자분 애뜻한 소리가 온 방에 가득해져오는 거라 방구들이 천장에게, 모서리가 벽에게, 한 시가 두 시에게, 삶이 죽음에게 젖을 물리며 늙은 방이 싸근싸근 숨을 쉬고 있는 거였다.

- 「69-삼신할미가 노는 방」 26)전문

위의 시에서 화자는 “오랫만에 고향집 안방에서 한 낮을 백년처럼 뒹” 굴다가 “까출하고 굵실한 희끗한 터럭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분명 그곳의 터럭”이다. 여기서 화자가 백년처럼 뒹구는 방은 거대한 자궁 즉, 삼신할미의 자궁이다. 삼신할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아기를 점지해주는 신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덤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방은 생명을 점지하기 위한 삼신할미의 자궁이며, “69”는 “죽은 것과 산 것들”이 한바탕 질펀하게 벌이는 성교 행위가 된다. 이 에로틱한 69는 ‘터럭’에서 발화된 시적 상상력이 삼신할미를 통해 “흰머리 성성한 어머니가 외할머니 젖을 빨듯, 시든 아버지가 할머니의 젖을 빨듯, 이상하게도 자분자분 애뜻한 소리”로 살아난다. 즉, 무심코 발견한 터럭 하나가 69라는 에로틱한 세계 안에서,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모든 것이 관계하여 무한히 순환되는 신화적인 상상력을 보인다.

이 시는 터럭이 누구의 것일까 하는 화자의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삼신할미의 안방과 무덤으로 변환되어 현실적인 시간과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과 상상의 세계는 69 즉, “방구들과 천장의 69, 전등과 전등갓의 69, 문틀과 문의 69, 한 시와 두 시의 69, 요와 이불의 69, 자음과 모음의 69, 모서리와 벽의 69, 두 시와 세 시의 69, 얼룩들의 69, 쥐오줌과 곰팡이꽃의 69, 손가락과 국그릇의 69, 주춧돌과 두꺼비집의 69, 옛날 옛적

26) 김선우, 『도화 아래 잠들다』, 창비, 2003.

산이었던 이 터와 지붕 얽힌 것들의 69, 죽은 것과 산 것들의 69, 어머니 태 속의 나와 어머니의 69” 라는 매개를 통해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69” 로 환원된다. 이러한 다양한 69의 주체들은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하여 6과 9가 맞물린 순환적인 세계를 보인다.

‘터럭’ 하나에서 발현된 시적 상상력은 삼신할미의 자궁(안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는 69의 행위를 통해 삶과 죽음,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을 결합해낸다. 그리하여 탄생과 소멸이라는 끝없는 순환적인 세계를 보인다.

순환적인 세계는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일원론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지향하는 인간 중심, 남성 중심 가치관은 생태계의 순환적 먹이사슬을 깨뜨렸다. 그것은 인간이 생태계의 다른 피조물처럼 여성/자연 안에서 나고 죽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연을 기계적인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는 생명체 사이의 관계를 순환적 먹이사슬로 인식하지 않고 정복과 지배라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인식한다. 인간은 자연을, 남성은 여성을, 백인은 유색인을, 자본가는 노동자를 지배한다. 인간 중심적 이원론은 누군가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강해져야하고 다른 생명체를 정복해야한다.

이어지는 다음의 시에서는 자연에서의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을 통하여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는 생태계의 순환을 노래한다.

저 여자는 죽었다  
죽은 여자의 얼굴에生生히 살아있는 검버섯  
죽은 여자는 흰꽃무당버섯의 훌륭한 정원이 된다.  
죽은 여자, 딱딱하게 닫혀 있던  
음부와 젖가슴이 활짝 열리며  
희고 고운 가루가 흰나비 분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반짝거리는 알들

내 죽은 담에는 뇌들 선산에 묻히지 않을란다  
깨끗이 화장해서 찹쌀 석 되 곱게 빵아  
뺏가루에 섞어달라시는 엄마 바람 좋은 날  
시루봉 너럭바위 위에 흩뿌려달라시는

들짐승 날짐승들 꺼려할지 몰라  
찹쌀가루 섞어주면 그네들 적당히 잡순 후에

나머진 사방에 실려 천 · 지 · 사 · 방 · 훔 · 훔  
가볍게 날고 싶다는  
참쌀 석 되라니! 도대체 언제부터  
엄마는 이 괴상한 소망을 품게 된 걸까

저 여자, 흰꽃무당버섯의 정원이 되어가는  
버섯거리는 몸을 뒤척여  
가벼운 흰 알들을 낳고 있는 엄마는  
아기 하나 낳을 때마다 서 말 피를 쏟는다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처럼  
수의 한 벌과 참쌀 석 되  
벽장 속에 모셔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기다려온 것이다

— 「엄마의 뼈와 참쌀 석 되」<sup>27)</sup>전문

늙어가는 어머니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들짐승 날짐승들 꺼려할지 몰라/ 참쌀가루 섞어주면 그네들 적당히 잡순 후에/ 나머지 바람에 실려 천 · 지 · 사 · 방 · 훔 · 훔/ 가볍게 날고 싶다는” 엄마의 바람으로, 이는 태초의 자연물로 되돌아 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엄마의 뺏가루는 들짐승 날짐승의 먹이가 되어 “가벼운 흰 알을 낳고 있는 엄마”가 되고, “서 말 피를 쏟”으며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다. 이것은 현재의 육신을 자연의 것으로 되돌린 후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육체를 희생하여 또 다른 삶을 지속시키는 모성성과 생태학적인 순환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을 암시한다. 여기서 ” 서 말 피 ‘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지만 이미 죽음을 전제한 것으로써의 탄생이므로 죽음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죽음의 이미지는 암울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즉, 시인의 순환적 세계관으로 인해 죽음의 무거움보다는 현생의 삶에 대한 갈구로 나타난다.

또한 선산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서열적 · 계보적 의식이 만들어낸 공간이다. 아버지 중심으로 형성된 부권가족제도에서 여성의 삶은 남성의 삶에 종속되고 부가된다. 선산은 족보와 마찬가지로 부권 중심 계보에 의해서 구획된 것이다. 따라서 선산에 묻히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다짐은 반가부장적이다. 나아가 어머니가 선택한 죽음의 방식은 생태적이다.

---

27) 김선우, 『내 혀가 입 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창비, 2000,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가족들을 위해서 바친다.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몸을 가족을 위해서 바쳤다면 이제 어머니는 죽은 몸을 들짐승, 날짐승의 먹이로 바치려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바램을 통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지향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뛰어넘은 생태적 세계관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순환되는 우주의 둥근 원리를 신화적 상상력으로 발현하는 김선우의 시들은 에코페미니즘적 인식으로 육화되어 있다.

### 3. 나의 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나에게 있어서 시를 쓴다는 것은 여성이라는 조건 속에 주어진 현실과 문명화 되어가는 자연을 접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는 삶 속에서 공존과 화해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의 시에서 자연, 어머니, 이주여성들의 시적 모티브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이것은 내 자신이 여성으로서 경험한 시적 현실의 자연스러운 발로이자, 자연에 대한 관심과 성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나의 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적 특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생태적 인식, 자연의 일부로서의 모성성에 대한 탐구, 이주여성을 통해서 본 문화적 생태주의 등이 그것이다.

#### 1)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생태적 인식

문명과 대척을 이루고 있는 자연은 생태적이라는 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생태주의는 우리에게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며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운다. 그물망과도 같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 속에서 에코페미니즘적 사유는 삶의 질서와 우주의 섭리를 발견해준다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인해 자연은 갈수록 훼손당하고 있다. 나의 시에서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면서 겪게 되는 개별적 고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울러 인간의 삶에는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미물들, 즉 자연의 일부인 동물과 식물에 있어서도 생명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다. 자연을 소재로 한 나의 시들은 「대곡댁에서」, 「매곡동」, 「햇살도 비껴 앉는 오후」, 「文魚」, 「봄」, 「가을」, 「텅 빈 한낮」, 「석남사 가는 길」,

「푸른 숲」, 「바닷가 무덤」, 「건조한 날」, 「수로부인 가라사대」, 「기억해보세요」, 「길」 등이 있다.

시인과 자연과의 교감이 삼라만상의 상호적인 관계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면, 이 시들은 생태적 사유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시 중에서 「대곡댐에서」, 「매곡동」, 「문어」를 살펴보겠다.

만삭을 부려 젓가슴 부푼 여자가  
호리병에 갈혔다

돌도끼를 든 사내  
산천 주술에 불려나가고  
젓을 빠는 움집 숨소리  
대곡이 들썩인다

구름 흐르듯 꽃날 흐른다

녹슨 팔주령 같은  
푸른 머리칼 흔들어대는  
대곡의 여자

귀향을 서두르며 몸을 뒤척이는  
호리병의 숨결이 거칠다

— 「대곡댐에서」 전문

한 때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던 생태적 터전이었던 대곡은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댐으로 건설되었다. 마을의 행복했던 전설들은 대곡 박물관에 복제되어 있을 뿐이다. 대곡댐을 마주한 화자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소통불가능의 상태로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녹슨 팔주령 같은 푸른 머리칼 흔들어 대”면서 “호리병의 숨결이 거칠”어진다. 인공 댐이 아닌 대지 본연의 자연 상태로 공존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한다.

이 시에서 댐은 여자로 비유되어 있다. 비록 호리병 속에 갇혀 불모의 삶



을 살아갈지라도 결코 메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모성의 본능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물질문명주의는 댐으로 아파트로 빌딩으로 자연을 타자화한다. 자연을 향해 밀고 들어가서 개발을 하거나 훼손을 시키는 현대의 문명 속에서 시인은 문명의 파괴적 속성을 경고한다. 다음 시를 보자.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놓쳤다

포도밭 원두막에서  
재덕이가 땀방울 흠손으로 훑치고  
말못하는 이야 언니  
부지런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넨다

퍼질러진 남면댁  
고사리 찾아 헤매는 산  
까치와 암괭 수괭이 구구단을 외운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린다

아이들 소풍 도시락 함께 뛰던 안산은  
이제 아파트 숲, 붉게 충혈되고  
진달래 꽃비 흐르던 뒷산으로  
자동차 아스팔트 인공 뼈꾸기 날아든다

논두렁을 질주하던 정옥 찬준 종선이기도  
빅마트 북부점에서 공룡의 알을 산다  
— 「매곡동」 전문

문명을 비유하고 있는 “아파트”, “아스팔트”, “자동차”, “빅마트”는 자연과의 교감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룡의 알”도 살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인간 중심의 진보 시대는 자연을 타자화하는데서 비롯된다. 화자는 인간과 자연이 소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붉게 충혈된 아파트와 인공 뼈꾸기 같은 상징들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문명의 파

괴적 속성은 결국 자연과 분리된 인간들을 홀로 남게 할 것이다. 인간은 새로운 물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욕망을 빠르게 만들어낸다. 이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문명의 야수성을 예견하면서 화자의 주위에서 잃어버린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려는 생태 의식이 보인다.

자연의 속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순환한다. 인간 중심에서는 하찮게 치부되는 미물들, 이 미물이라는 단어도 인간의 세계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들도 나름대로의 긴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어지는 시 「문어」를 보자.

거친 소금 한 웅큼 뿌려  
바락바락 문지르며  
흠어 내리다가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동자를 보았다

너는 왜 그래야하느냐는 듯  
나는 왜 이래야하느냐는 듯

느릿한 너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나 내 먹통을 터뜨리며  
너의 화두가 들어왔다  
검은 바다를 거두어들이는 너

千手 가지런히 제상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文魚 한 마리

— 「文魚」 전문

제상에 올릴 문어를 씻으면서 화자는 문어의 몸을 통해 감각이 깨어난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먹물을 뱉어내는 문어의 움직임을 예리한 주체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 입장에서 먹통 속을 가득 채워 화자 앞에 있는 문어는 오히려 화자의 스승이 된다. 바다 속의 탁한 삶들을 먹통 속에 거두어 들였다고 상상하는 화자는 자신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문어의 먹통이 아닌 “내 먹통을 터트리며” “너의 화두가 들어” 온다는 것은 문어와 화자와의 교감의 순간을 의미한다. 상생의 삶을 추구하는 문어의 먹통을 통하여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는 듯 화자의 굳어 있던 먹통이 스르르 문어의 먹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제상에 앉은 문어. 천수의 관음 보살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문어를 통하여 화자는 다시 글 한 묶음으로 우주 일체의 순간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중심의 사고로 인해 빚어지는 자연에 대한 폭력은 결국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되돌아온다. 순환이 역류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는 화자의 에코페미니즘적 사유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 2) 자연의 일부로서의 모성성에 대한 탐구

근원에 대한 회귀 욕망은 모성 또는 모태를 향한 여정을 낳는다. 생명 본원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시는 문명 세계 속에서의 상처와 균열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나의 시에서도 모성성이 드러나는 어머니 소재의 글들이 많이 나온다.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을 만들고 기르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곧 자연의 일부이다. 대지의 따뜻함과 온유함을 지닌 어머니에 관한 나의 시들로는 「흰나비」, 「백토」, 「축제」, 「봄날, 대흥사」, 「종이 인형」, 「백암온천」, 「제라늄 꽃」, 「낙타들의 휴식」, 「은목서꽃」, 「돌장승」, 「우로보로스」, 「가을 편지」, 「불꽃」, 「오월」, 「만숙이」, 「어디서 왔을까」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흰나비」와 「백토」를 살펴보겠다. 이 시들에는 한 생을 사랑과 희생과 따뜻함으로 대지의 씨앗들을 보듬어 키워낸 후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가는 순환적 세계관이 있다.

새해에 흰나비를 처음 보면  
그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른아른 먼빛에  
날아오르는 게 보이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듯이 가고 싶구나  
허공으로 되뇌는 바람들이  
하얗게 떠다니고 있었다

어머니는 봄을 기다렸고  
봄은 자주 찾아왔다  
마른 옥수숫대 껍질처럼 몸은  
점점 가벼워졌다  
손목이 가늘어질수록 지팡이만큼  
그림자도 작아지셨다

가시 울타리에서  
붉은 장미 침묵하던 날  
어머니는 훌쩍 떠나셨다  
그 해에 분명 흰나비를 처음 본  
기억이 없는데

꽃 한줌 베개 삼아 쉬고 싶으시나  
흰나비, 무꽃 밭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 「흰나비」 전문

어머니의 상징은 대지와 연관되어 있다. 대지처럼 포근한 가슴으로 연상되는 어머니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을 느낀다. 화자는 어머니 생전에 나비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새해에 흰나비를 처음 보면 그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화자는 어머니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삶의 안식처였던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봄을 기다”리며 떠날 준비를 한다.

이 시에서 봄은 이중성을 지닌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봄은 죽음을 의미하고 “무꽃 밭에서” 나비를 바라보는 화자의 봄은 삶을 의미한다. 삶과 죽음은 우리가 비켜갈 수 없는 일이며, 자연 생태의 한 흐름인 것이다. 유한의 삶 속에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나 우주의 미립자들처럼 인간도 자연도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순환한다.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연 속에 상반되는 것, 즉 삶과 죽음, 이 양극을 인식하고 이 양극 사이를 살아가는 데서 오는 행복감, 불안감, 고독감, 이어지는 생명

등이 교체되고, 중복되고,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존재이다.

여기에서 어머니와 나비를 동일시하는 화자의 시적 태도는 나비와 인간은 동일한 자연의 질서에 참여한 생물체이며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로 뭉쳐서 인식하고 있다. 봄이 다시 오고 나비가 날고 있다, 따뜻한 대지의 모성으로 화자를 안아 거두었던 것은 결국 자연의 일부분이었다. 다음의 시 「백토」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나무 창창한 산등성이  
백토가루 흩날린다

발그레 갓 물든 서녘  
우두커니 바라본 하늘  
졸음에 겨운 어머니  
놋그릇을 닦는다

지푸라기 웅동거려  
물 묻히고 백토 묻혀  
막내의 꼭지달린  
밥그릇 뚜껑까지  
쓰윽 쓰윽 쓰윽 쓰윽  
놋그릇을 닦는다

주름주름 고랑진 살갓  
백토가루 스며든 자리  
졸음에 깊은 어머니  
백토를 닦는다

유기명경으로  
반야의 길 앞세우고  
미진의 티끌 한 올  
숨소리 닳는 그 곳  
스윽 스윽 스윽 스윽  
백토를 닦는다

— 「백토」 전문

죽음은 생과 단절된 세계가 아니다. 생이 다한 후에 찾아드는 죽음이 아니

라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에서는 죽음 속에서의 우주 모체에의 몰입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화자는 소나무 울창한 산등성이에 오른다. 그 산등성이는 “백토 가루 흩날” 리고 있다. 화자는 백토를 보면서 어머니 생전의 낫그릇 닦는 모습을 연상한다. 조상을 섬기는 명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낫그릇을 닦으시던 어머니를, 대가족의 힘든 일과들로 인하여 줄음을 못 이겨 고개를 꾸벅거리면서 그릇을 닦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돌아가신 조상들과 살아있는 가족들을 동시에 섬기며 감싸 안을 줄 아는 어머니의 모습은 대지의 모성 그 자체이다. 일상의 주어진 생활 속에서 묵묵히 낫그릇을 닦던 어머니는 이제 다시 죽음 속에서도 자연의 일부로 환원되기 위하여 백토를 닦고 있다.

인간은 죽은 후에 자연의 일부, 우주 속으로 돌아간다. 거대한 자연 속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또다시 조상의 일원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한다. 이 시에서 ‘백토’는 땀방울을 흘리며 주위의 모든 것들을 섬기며 감싸 안는 대지의 따뜻한 모성이며, 자연의 일부로서의 어머니 자신이기도 하다.

이 시들은 순환론적 세계관에서 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하여 모성성과 자연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에코페미니즘적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 3) 이주 여성을 통해서 본 문화적 생태주의

세계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주민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내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는 일이 이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이주여성들이 삶, 언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가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여 이주해 온 외국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타자화한다. 낯선 나라에서 뿌리를 내려가는 그들은 자기 희생을 통한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로 가득하다. 고향나라의 가족들과 낯선 나라의 문화 등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은 타자들을 감싸고 끌어안기로부터 시작된다. 이주에 따른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서로 다른 문화와 이질적인 언어 등 다중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그들은 척박한 대지에서 서두름이 없이 뿌리를 뺏어간다. 이주 여성들을 소재로 한 나의 시들은 「母音」, 「그녀의 바다」, 「보리라

고 부르겠다」, 「류소화」, 「JESSIE」, 「민들레」, 「그녀의 인사」, 「불투명 수채화」, 「코가 빛나는 건이」, 「맹랑한 꽃송이」, 「동화 - 그 여자」 등이 있다. 여기에서 언어와 문화와 모성을 통한 생태의식이 돋보이는 「모음」과 「류소화」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모음」은 초기 이주 여성들이 언어로 겪는 고통을 생태적인 여성의 본능으로 승화시켜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다흥아 다흥아 다흥아  
그녀의 소리에 반짝이는 다형이 눈동자

쌀국수를 끓이면서 나에게 알려주던 퍼버 발음에  
- 아니요오 아니요오 아니요오  
몇 차례를 반복하며 마침내 만족하던 그녀

그녀, 한국 입국 이 년차  
다형이는 그녀의 칠 개월 된 딸

호치민에서의 그녀의 母音은  
들숨과 날숨 사이로 흘러들고 흘러나갔으리  
동그라미 그리듯 우우우 떠 다녔으리

다형이 앞에서의 그녀의 모음은  
날 선 말더듬이  
긴 장마 속에서 빗물에 젖은 날개

- 다히영 다히영 다형  
젖은 날개를 털어내는 그녀의 母音  
- 「母音」 전문

이주 여성들이 초기에 언어로 겪는 고통은 가까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한다. 화자는 이주 여성인 다형이 엄마가 화자에게 베트남어 한 단어를 알려주는 장면과 다형이를 부르는 모습에서 따뜻한 연민을 갖는다. 칠 개월 된 다형이를 다흥이라고 부르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어의 ‘여’ 발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딸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은 화자는 ‘다히영’이라고 부르라고 말한다. 그렇게 발음하면

‘다형’이라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화자에게 알려주던 베트남어의 ‘퍼버’ 발음도 베트남 사람인 다형이 엄마에게는 쉽게 발음되지만 화자에게는 어렵다. 낯선 나라의 언어들은 그녀들의 새로운 삶만큼이나 두렵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들이다.

이 시에서 ‘모음’은 다형이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소리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혼돈 속에서의 모국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자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키워나가듯이 이주 여성들 또한 낯선 나라에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적응해가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음 시에서는 이주 여성이 언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함께 겪고 있다.

가파른 층계를 올라가면  
엄마 따라 이주해온 소년이  
몰라요를 반복하며  
극세사 이불 속에서 뒹구는 집

겨울바람이 송송 드나드는  
소화 씨가 세들어 사는 이층 집

하얗게 흩날리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두 속에 집을 짓는 그녀  
고기볶음 달걀볶음 부추생잎 잘게 다져  
빈틈을 아우르는 그녀

꿇전에 들랑대는 목단강의 모음 사이로  
미끄러지듯 만두를 빚는 그녀의 손  
밀대에 눌러 눌러졌다 다시 오므라드는  
그녀의 한 겨울

만두 속에 책상을 들이고 그녀의 아들과  
낯선 방언의 사전을 펼치면 스탠드 불빛 아래로  
민들레꽃처럼 웃음주머니 부푸는 만두들  
가끔씩 가슴을 움켜쥐는 그녀

이른 아침 층계를 내려와  
하루 내내 노동에 절은 두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깜깜한 층계를 다시 오르는 그녀

그녀의 아들과 풀벌을 뒹구는 날들을 위하여

부추잎 같은 푸른 말들로 집을 짓는 그녀

- 「류소화」 전문

이주 여성들은 민들레 흩씨처럼 낯선 문화에서도 곳곳한 자생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고향의 가족까지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며, 이 시 속의 그(류소화)처럼 고향에서 데리고 온 자식까지도 언어와 음식과 생활 습관들이 다른 한국에서 함께 적응하며 살아야 한다. 이주 여성들이 결혼하여 살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 남편들은 넉넉하지 않은 경제력의 소유자들이다.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며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류소화는 재혼 가정의 이주여성으로서 한국어 대화가 매우 서툴다. 중국에서 낳은 아들까지 함께 이주하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곧바로 공장에 다니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의사가 소통되지 않는 나라에서 모든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며, 미래의 생활까지도 설계해야 한다. 그런 중에도 틈틈이 그녀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중국 음식인 만두를 빚으면서 아들과 함께 즐거운 미래를 상상한다. 여자이기애, 어머니이기애, 현실의 어려움을 긍정의 삶으로 밝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중 사전을 펼치고, 류소화와 그의 아들은 한국말 익히기에 정성을 다한다. 류소화는 노동에 절은 두 손도, 가슴의 통증도 환한 웃음으로 묻어버린다. 화자는 그녀가 익숙하게 만두를 빚는 일처럼 한국에서도 류소화와 그의 아들이 한국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은 대지 속에 굳은 희망의 뿌리를 내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익히기에 최선을 다한다. 낯선 환경 속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일상의 삶을 긍정한다. 고향 나라의 딸로서, 이주해 온 나라의 어머니로서 든든한 버팀목이기를 자원한다. 이주 여성들의 역동적인 생태 의식은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모성의 순환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타자를 감싸고 껴안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해간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과 시적 상상력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여성시의 계보를 살펴보면, 제1기에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등이 있다. 이들은 1920년대에 여성의 자유와 개방,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문단 활동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 제2기는 노천명, 모윤숙, 제3기는 김남조, 홍윤숙, 제4기는 강은교, 김승희, 최승자, 김혜순, 고정희, 천양희, 제5기는 허수경, 나희덕, 최영미, 신현림, 이경림, 김선우 등으로서, 이들은 세대별로 각기 다른 여성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학적 변모를 보여왔다. 특히 1990년대는 한국 여성시의 개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인들 중에서 본고는 김혜순, 나희덕, 김선우의 시를 카니발적 상상력, 생태적 상상력, 신화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각각 살펴봄으로써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양상을 개괄해 보았다.

김혜순의 시는 몸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낯선 이미지들을 병치시키면서 세계에 대한 느낌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특히 「벼랑에서」, 「딸을 낳던 기억」, 「그녀 요나」 등은 여성의 몸과 자연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여성과 자연이 폭력적 세계 속에서 억압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시들이다. 이 시들에서 김혜순은 남성 전유물인 언어와는 대칭적으로 신체를 비틀어 몸으로 글을 씀으로써 카니발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나희덕의 시는 생태적 친연성과 대지의 모성성을 기반으로 하여 억압과 폭력의 세계를 향해 따뜻한 어미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떤 출토」, 「물매기를 기억함」, 「저 숲에 누가 있다」 등은 생태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만남을 통하여 자연과 여성의 닫힌 숨길을 터주고 있다. 현대의 불모성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회복하고 치유와 보살핌의 자세로 공존의 삶을 지향하는 생태적 상상력을 보인다.

김선우의 시는 자연의 본성을 여성성으로, 여성의 본성을 자연성으로 환치시키면서 여성과 자연을 하나로 일치시킨다. 특히 「둥근 기억들의 저녁」, 「69-삼신할미가 노는 방」, 「엄마의 뼈와 찹쌀 석 되」 등은 자연과 여성의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신화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여성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우주로서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관계를 맺는 공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은 구체적인 것으로 형상화 되고 이렇게 표현된 이미지는 신화적 상징을 갖는다. 또한 이들은 한데 어울려 끝없이 순환하는 신화적 상상력을 보인다.

나의 시는 우선 자연을 모티브로 한 경우가 많고 시들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에코페미니즘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등장하는 시가 적지 않은데, 이 때 어머니는 삶과 죽음이 순환되는 자연의 일부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을 통해서는 모성과 여성성의 발현이 낯선 문화에서 타자들을 끌어안고 현실의 어려움을 긍정의 힘으로 치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타자성은 주체의 사유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희생과 같은 타인에의 관심과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sup>28)</sup>고 보았던 레비나스의 성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여성적인 것’ 이란 개념에서 나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식 불가능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빛을 벗어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적인 것의 타자성의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타자성 뿐이다. 그의 타자성에 바로 신비가 있다.” <sup>29)</sup>는 말은 여성적인 것과 타자성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생명을 지향하는 여성성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인간 중심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룩해온, 이원론적인 남성 중심 역사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대립이 아니라 포용을, 죽음이 아니라 삶을 지향하는 생명의 원리를 지닌 여성성은 여성 문학의 근원이자, 새로운 시적 상상력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으로 입혀진 모성의 신화를 벗고 여성 스스로가 체득한 새로운 시쓰기를 모색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을 포용하는 에코페미니즘적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

28) 레비나스에 있어 윤리의 보편성은 자아론적인 이기주의를 버릴 것과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윤대선, 「 ‘너’ 와 ‘나’ 의 삶의 공동체를 위한 페미니즘의 기원과 해석」, 『해석학 연구』, 제20집, 한국해석학회, 2007.)

29) 엠마누엘 레비나스 지음,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2001. p.106.

## 5. 첨부 작품

## 제1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생태적 인식

대곡댐에서

만삭을 부려 젖가슴 부푼 여자가  
호리병에 갇혔다

돌도끼를 든 사내  
산천 주술에 불려나가고  
젖을 빠는 움집 숨소리  
대곡이 들썩인다

구름 흐르듯 꽃날 흐른다

녹슨 팔주령 같은  
푸른 머리칼 흔들어대는  
대곡의 여자

귀향을 서두르며 몸을 뒤척이는  
호리병의 숨결이 거칠다

## 매곡동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를 놓쳤다

포도밭 원두막에서  
재덕이가 땀방울 흠손으로 훔치고  
말 못하는 이야 언니  
부지런한 몸짓으로 인사를 건넨다

퍼질러진 남면댁  
고사리 찾아 해매는 산  
까치와 암뽕 수꿩이 구구단을 외운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내린다

아이들 소풍 도시락 함께 뛰놀던 안산은  
이제 아파트 숲, 붉게 총혈되고  
진달래 꽃비 흐르던 뒷산으로  
자동차 아스팔트 인공 뼈꾸기 날아든다

논두렁을 질주하던 정옥 찬준 종선이기도  
빅마트 북부점에서 공룡의 알을 산다

햇살도 비껴 앓는 오후

멀리서 황소 울음소리 들려온다  
개나리꽃 활짝 핀 봄날 정오  
거대한 레미콘들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공을 한다

씨이잉, 철커덕 철커덕, ……  
HALLA와 HYUNDAI가  
숨소리 거칠어진다  
쉬임없이 정액이 쏟아진다

욕망이 곧추 선 음경에서  
톡톡 터지는 심장들  
짓이겨 다독이던 낯선 사내들  
하나 둘 흩어지고

복제된 자궁이 익어가는  
햇살도 비껴 앓는 오후

미궁에 갇힌 생명은  
더 이상  
느린 황소 울음소리 듣지 못한다



## 文魚

거친 소금 한 움큼 뿌려  
바락바락 문지르며  
흠뻑 내리다가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동자를 보았다

너는 왜 그래야하느냐는 듯  
나는 왜 이래야하느냐는 듯

느릿한 너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나 내 먹통을 터뜨리며  
너의 화두가 들어왔다  
검은 바다를 거두어들이는 너

千手 가지런히 제상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文魚 한 마리

봄

붓 한 자루씩  
움켜쥐고

삼월의 목련  
가지 끝에 올라

참을 수 없음

저마다  
일필휘지 一筆揮之

가을

거미줄 그물 끝에서

거미줄을 응시하는

거미 한 마리

유리 거울 속에서

디지털 폼에 엉켜있는

여자 한 사람

햇살 바삭바삭 밟으며

가을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텅 빈 한낮

대문이 닫힌 집  
담벼락에 붙은 전기 계량기는  
돌지 않았다

궁금했을까  
칠 벗은 우편함에 꽃혀진  
편지 한 통  
이천 팔 년 무각사 발신이었다

담장 너머 보이는 토방에  
빛바랜 분홍구두 침묵만 뒤척였다

누가 만들었을까  
창고 벽에 중심 잃은 나무 선반

色을 다 퍼내고 어딜 가셨나  
그림자만 안고 있는  
텅 빈 한낮

## 석남사 가는 길

석남사 일주문 앞, 성년 물줄기 따라  
대웅전 목탁 소리 흐르고 있다

사월의 배넙뿔 잎들을 매단  
나뭇잎들 사이로  
나를 부르는 소린지 날  
부르는 소린지  
반야심경, 관세음보살  
애절하게 들려온다

서어나무 한 그루  
탁류의 세상 속에서  
육신의 탈 벗고 변신 중이다  
그의 몸 푸른 눈 솟지 않는다

누가 쌓아 올린 세상일까  
물이 마른 계곡에는  
돌탑들 사객寺客을 향해 합장 한다  
번뇌의 무늬 지우고 단 하나에 이르는 길  
한 돌 한 돌 탑 사이로 피가 흐른다

비비…… 지지…… 쇠아 ……  
발길 반기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인가  
고요 속에 참회는 새가 되고 바람이 된다

웃등이 사라진 서어나무  
나를 보고 웃는다  
부처님 같이

## 푸른 숲

푸른 숲이 있었다  
물결이 잠든 호수가 있었다

새 한 마리 잡목 사이로  
후르륵후르륵 날고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비오는 날에는 숲에 들지 말아라  
수직의 비는 나무를 삼킨단다

비는 내리고 나무는 더 가까이에서  
울고 있었다  
장대비 사이에서 날개를 접은 새는  
검은 나무줄기 떠날 줄 몰랐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숲  
투욱 툅! 마지막 빗방울을 일으키는  
나무가 있었다

## 바닷가 무덤

바다 사내들은 죽어서도 바다를 바라본다지  
바닷가 언덕, 무덤에는 바다 사내들이 묻혀있다지

만선의 입항, 축제의 날처럼  
파도 소리에 귀 열고, 시린 물빛에 푸르러지는 눈  
파도너울 따라 그들, 남해를 어루머듬고 있어

뱃고동 울리며 승부 가르는 사내들

바다를 넘어야만 이 언덕에 오를 수 있지만  
바다를 품어야만 저 언덕에 달을 수 있어

바다 사내들은 바다이고 싶어, 죽어서도 바다를 바라본다지  
바닷가 언덕, 무덤에는 바다로 떠나고 사내들은 없다지

건조한 날

적송의 군락지  
덩굴나무들에 휘감겨  
몸 가렵네

이른 봄날  
마른 덩불 같은 내 몸  
사각거리네  
붉어 물러지도록 굵네

몇 길의 적송 혼절한 듯  
수면이 깊네  
그림자 보이지 않네

무심히 라디오에 흐르는  
햇빛 한 줌  
수다 세 알이라는 처방

건조한 날  
누구도  
우울을 말하지 않네



수로부인 가라사대

— 헌화가와 해가를 보며

바다 물결 잔잔히 출렁이는데  
저 꽃은 왜 피어 나를 부르지요?  
천 길 바위 위에서 피어난 철쭉꽃  
왜 나는 저 꽃이 갖고 싶지요?

나는 한 남자의 부인이지요  
못 사람들은 아름답다 말하지만  
저 꽃의 붉은 꽃술이 나의 분신인 걸요  
나에게 나를 보여 주세요

한 사람 꽃을 꺾어 나에게 주었지요  
나를 꺾어 나를 바친 건  
나를 알아주는 사람

수려한 용을 따라 보물 궁전 갔지요  
— 해신海神아 해신아 수로를 내 놓아라  
남의 부녀 앓아간 죄 너를 잡아 구워 먹겠다

왜 나를 불러내나요

세상에 견줄 이 없이 아름답다 말하지만  
내가 찾는 나의 사랑, 나는 갖고 싶은 걸요

기억해 보세요

햇살 모아지는  
낮은 구름 위에  
타원형 집터 고르고  
기둥을 세웠지요

통나무 불꽃 위로  
물고기 익어가는 저녁  
귀퉁이 깨진 바리에서  
밥알들 몽글거리고  
홍도에 흐르는 풀바람  
찰랑거렸지요

장흥 유치  
선사시대 유적지를 걸으면  
제멋대로 흩어진 돌조각과  
영킨 나뭇가지 사이로  
들국화 한 아름  
안고 오는 그대

또 다시 날랜  
수렵의 시간 속에서  
나를  
기억해 보세요

## 길

눈을 감고  
감은 눈 속에서  
눈을 뜬다  
길이 보인다

가본 적 없는 길  
자꾸 걸어간다  
소녀가 사는 집이 보인다

동그란 눈동자로  
길을 걷는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돌부리에 마음 채이고  
어둠에 발길 채인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술래가 된다

눈을 뜨고  
뜬 눈 속에서  
눈을 감는다  
길이 찬란하다

이슬이 되어  
뿌리 적실 수 있겠다  
흙 될 수 있겠다

## 제2부: 자연의 일부로서의 어머니

## 흰나비

새해에 흰나비를 처음 보면  
그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른아른 먼빛에  
날아오르는 게 보이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듯이 가고 싶구나  
허공으로 되뇌는 바람들이  
하얗게 떠다니고 있었다

어머니는 봄을 기다렸고  
봄은 자주 찾아왔다  
마른 옥수수대 껍질처럼 몸은  
점점 가벼워졌다  
손목이 가늘어질수록 지팡이만큼  
그림자도 작아지셨다

가시 울타리에서  
붉은 장미 침묵하던 날  
어머니는 훌쩍 떠나셨다  
그 해에 분명 흰나비를 처음 본  
기억이 없는데

꽃 한 줌 베개 삼아 쉬고 싶으시나  
흰나비, 무꽃 밭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

백토

소나무 창창한 산등성이  
백토가루 흩날린다

발그레 갓 물든 서녘  
우두커니 바라본 하늘  
졸음에 겨운 어머니  
늦그릇을 닦는다

지푸라기 웅동거려  
물 묻히고 백토 묻혀  
막내의 꼭지 달린  
밥그릇 뚜껑까지  
쓰윽 쓰윽 쓰윽 쓰윽  
늦그릇을 닦는다

주름주름 고랑진 살갓  
백토가루 스며든 자리  
졸음에 깊은 어머니  
백토를 닦는다

유기명경으로  
반야의 길 앞세우고  
미진未盡의 티끌 한 올  
숨소리 닿는 그 곳  
스윽 스윽 스윽 스윽  
백토를 닦는다

## 축제

미수米壽를 앞둔  
마른 옥수숫대 같은 어머니  
햇살 웅크린 터알에서  
호미질 하신다  
상추씨앗 넣으신다

띄엄띄엄 남아 있는  
지난 해 심은 상추들  
튼실한 잎들을 비비며 웃는다

빈자리 호미로 숨길을 여는 어머니  
바람의 꼬리 같은 손끝으로  
씨앗을 흩뿌린다  
봄의 축제 주관 하신다

어머니의 눈길이 햇살이시다

반짝이는 돌 틈 사이에서  
제비꽃 베시시 꽃술을 연다  
민들레 한 송이 길게 하품을 한다

봄날, 대흥사

어머니 지팡이 짚는  
소리에  
긴 들숨 털며  
부스스 눈 비비는 대흥사

천불당에 이르러  
무상無上 삼 배 올리니  
삼천의 절 받드신 부처들  
사랑사랑사랑사랑……  
봄날의 숨 부산하다



## 종이 인형

검푸른 작돏날 위 곧추 서 있는

무당발바닥같은시간들이흐르고있었어

겨울허수아비빈들바람찢긴저고리가슴멍울처럼

시간들이흐르고있었어

심장도 목소리도 쓰레기통속으로구겨넣으려는듯

마지막말방울방울빈거품꼭꼭눌러가벼이삼키는인공호흡기

나를 바라보던 너의 눈빛이

내손끝달을거울에매달려흐르고있었어

새벽별이 금성처럼 다가오는 시간들

반야봉구름속에너에게달은적없는메아리로떠도는

사랑해미안해사랑해미안해사랑해……

백암온천

증기에 쌓인 배 한 척  
그 배의 향기에 출렁이는  
온천의 온탕

정월이면  
백암의 온탕 속에  
백합 한 송이 피어오르네  
목양목 솜이불 같은  
그 여인의 뱃살에  
피어나는 백합

부서지고 부딪히는 물살  
연어 떼처럼 거슬러 올라  
이제 속력을 접은  
만선의 배

온탕 가장자리에  
다소곳이 잠긴 여인  
하얀 건반 위에  
느리게 울려 퍼지는  
백합의 향기

한 겨울 눈 내리면  
또 그곳 찾겠네

## 제라늄꽃

토분에 심어진 그날부터  
시간의 수틀을 걸고 있는 꽃

아파트 담장 아래에서 나를 부른 날부터  
바지런히 손을 흔드는 꽃

요가 학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처음 본 그때부터  
끊임없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꽃

흐르는 땀방울 내 키보다 높이 쌓여  
떨리는 내 손끝 이르지 못하는 꽃

내 입술 젓꽃판에 비비대던 그 날부터  
끊임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꽃

## 낙타들의 휴식

봄을 맞는 낙타들로 목욕탕은 분주하다

썩 향기 가득한 열탕  
화장품 외판원 낙타와 그녀의 단골인  
환갑을 바라보는 낙타의 피부를 삼킨다

발암으로 깡마른 어깨 위에  
타올을 걸친 중년의 낙타  
넓은 온탕을 은어처럼 떠돈다  
출렁이는 타올 사이 은비늘로 물 스민다

물개처럼 침대에 누워 때를 벗는 낙타  
차르르 윤기 번지는 하얀 능선 위에  
두 개의 젓꼭지 팽팽하다  
물개의 살갓에 열심히 손을 놀리는 낙타  
긴 갈퀴 등 밑에 넣어 지폐를 굵고 있다

낙타들 혈떡이는 옥 사우나로  
얼음커피 들고 가는 낙타  
냉탕에서 유연하게 꼬리 흔드는 낙타  
샤워기 물줄기 아래 머리칼 두드리는 낙타  
제 몸을 제가 깎아 흘려보내는 낙타

목욕탕 밖에는 배꽃 지평을 퍼는데  
나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흘뜨리고 있다

은목서꽃

별들에게 향기가 있다면 이런 걸 거야

내가 걸어가는 길

자꾸 뒤돌아서게 해

별들의 목소리도 이런 향기일 거야

그 목소리가 나를 이끌고 있었어

어쩌면 마실 나온 아기별들이

내가 엄마인 줄 알고 부른 걸 거야

길을 잃고 부른 걸 거야

가까이 다가가는데 차마 못 기다려

“으양” 터뜨린 아기별 향기

엄마 손을 꼬옥 잡고

별나라로 가고 싶은 소리일 거야

## 돌장승

— 내 품에 안겨보렴  
별도 달도 동동거리는 초저녁  
슬픔을 긴 포대기로 감싸  
포근히 안아주시는 할아버지 돌장승

— 할아범, 탕건 쓰고 포대기를 들었남  
이빨 모두 드러내며 호호거리는 할머니  
앞치마에 잘 익은 굴 서너 개 내보이며  
나에게도 업히려는 듯 다리 구부려  
등 내미시는 할머니 돌장승

민속 박물관 잔디밭에  
이빨 없이 콧수염 축제처럼  
기르신 할아버지  
두 눈 보름달처럼 뜨고 체질하듯  
웃으시는 할머니

— 이제 돌아가렴 어여 돌아가렴  
내 등 토닥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별빛도 달빛도 교교하다

우로보로스

내가 잠들었을 때 고무나무 이파리 하나  
어미 몸통을 밀며 솟아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 잠들었을 때 동굴 속 메아리 같은  
은은한 신음 들려오고 있었다

소파 한 귀퉁이에 또아리 튼 어머니는  
마디마디 생의 내면을 감고 있었다

어둠은 귀를 세우고 마른 입술을 적셨다  
목각인형들은 어둠의 동굴을 깨웠다

어둠새벽의 소파 옆, 고무나무 이파리 하나  
말갈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가을 편지

탱자 향기를 말합니다  
눈을 감아도 그대의 기억들  
스멀스멀 바람 따라 몰려옵니다

무량수 무량겁을 들으며  
연지곤지 화장을 하고  
고운 꽃신 신으셨지요

이제는 사랑하지 마세요  
가시는 발길 가볍게  
아무도 사랑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정하지 마세요  
불어오는 바람에 낙엽처럼  
마음에 구멍 뚫리잖아요

앞새 뒤에서 자라던 푸른 탱자는  
이제 자신을 감추지 못합니다  
노랗게 물든 낮빛 사이로  
내 곁에 잠시 머물렀던 그대  
향기를 말합니다

무량수 무량겁을 들으며  
서방 극락국에서  
아미타불을 만나셨겠지요

밤마다 불 밝혀도  
내 갇을 수 없는 은혜  
이제는 기도하지 마세요



## 불꽃

꿈지 기다란 산까치가 울었다  
솔잎 마른 큰 소나무 베어질 수 없다

나지막한 산허리  
햇빛 앉아 쉬는 곳에  
아버지가 누우셨다  
뒷걸음 저만치 언덕바지엔  
산수유나무, 옛날 그대로를 이야기 한다

나무를 본다 소나무는  
수십 년을 넘음직한 자태가 곧다  
메마른 가지마다  
꿈 빛이 푸르른 솔방울들

아버지가 웃고 계신다

다시 만날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까치야,  
솔바람 어린 풀잎에 숨소리 끊이질 않고  
애뜻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단다

오월

낮은 목소리로 들려오는  
아낙의 넋두리  
오월은 살아야한다  
물앵두 모란 작약 자두 치자……  
기하학적 선율의 나무 기둥을 따라  
유난한 감나무 연초록 앞들

늘 깨어 있어  
다섯 살배기 계집애처럼  
스멀스멀 엄마 젖가슴 파고들어  
이내 아랫입술 조곤대는  
푹푹한 보리 꽃 넘어지는 소리

한 때는 일구지 못한 황토들  
세상 끝 부동켜안고 곤두박질했다  
먹빛 하늘 아래 육신들 어지러이 흩어졌다  
스산한 바람, 빈 들녘에 가득할 때  
앞들이 깨어나서 들려주는  
숨 쉬던 자들의 성실함

금남로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 높이 들고  
외마디 신음을 내던 사람들  
시청 앞 거리에서 총소리 장단 맞추어  
새벽이 깨어나도록 부르던 애국가 합창소리들

또 다시 돌아오는  
푸른 앞들 사이로 기지개 켜는 오월  
지금도 가슴 끓는 사랑이야

## 만숙이

마산댁네 외동딸 만숙이  
시집갈 무렵 보이지 않았다  
뚝배기 같은 시골 처녀  
오래도록 우물터에 보이지 않았다

빨래하는 아낙 물동이 채우는 아낙  
남새를 씻는 아낙, 아낙네들  
손놀림 입놀림 구성지게 흘렀다

- 저렇게 샘물 솟는 게 잘 보이면  
동네에 화냥년이 나온다는디……
- 새암 청소 할 때 독덩이로 감춰볼까
- 만숙이는 여직 소식이 없당가?  
마산 아짐 곧 이사간다더만
  
- 누가 술집에서 봤다더만  
화장 찌나게 하고 만숙이가……
- 오매! 어쩐당가 우리 동네 큰일 났네

이끼 낀 안통 샘물 바가지로 휘휘 저어  
물동이에 물 퍼 올릴 때, 만숙이  
숫구치는 저 모래 구멍, 맨살 같은 저 샘구멍  
욕정의 심사도 실렸나보다

쥐도 들고 새도 들고 바람도 드는  
만숙이네 살던 집은 빈집이 되었다

어디서 왔을까

그 때의 동작들 따라 해보고  
입었던 니트, 호주머니 만져보고  
꽃혀진 책들 다시 들춰 흔들어보고  
어깨에 댄 가방 거꾸로 흔들어보고  
어쩌면 누군가 의심해보고

언젠가 몇 시간을 찾아 헤매던 명함 한 장  
끝끝내 찾지 못했던  
마침내 마음 잡고 잊어야했던  
그 명함,  
달포쯤 지난 어느 날  
서랍장 윗면에 덩그마니 놓여 있던  
그 순간처럼

정말 어디 갔을까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안방에서 거실로 식탁으로  
좌탁의 책들 이리저리 옮겨보고  
쌓여진 편지 뭉치 하나하나 헤쳐보고  
다기세트 덮개도 들춰보고

덜된 시 뭉치들 나란히 세우고  
뒤엎킨 책, 노트들 정리하고  
뒤죽박죽 가방 속 제자리에 앉히고  
구르는 연필, 볼펜, 꽃이에 꽃고  
한 생각 훌훌 풀어  
노트북 켜고 키보드 두드리니

어디서 왔을까  
내 것이 아닌 것들

### 제3부: 이주여성을 통해서 본 문화적 생태주의

## 母音

— 다흥아 다흥아 다흥아  
그녀의 소리에 반짝이는 다형이 눈동자

쌀국수를 먹으면서 내게 알려주던 퍼버<sup>30)</sup> 발음에  
— 아니요오 아니요오 아니요오  
몇 차례를 반복하며 마침내 만족하던 그녀

그녀, 한국 입국 이 년차  
다형이는 그녀의 칠 개월 된 딸

호치민에서의 그녀의 母音은  
들숨과 날숨 사이로 흘러들고 흘러 나갔으리  
동그라미 그리듯 우우우 떠 다녔으리

다형이 앞에서의 그녀의 母音은  
날 선 말더듬이  
긴 장마 속에서 빗물에 젖은 날개

— 다히엄 다히엄 다형  
젖은 날개를 털어내는 그녀의 母音

---

30) 쌀국수의 베트남어

## 그녀의 바다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는 그녀  
물속에 다른 음식을 섞지 않는다는  
그녀의 위장  
손잡이 빠진 서랍장 같은 바다에는  
까르까르 조개 떼들이 한참을 뒹굴고 있다

그녀의 바다 출렁인다  
발목이 빠진 조개  
빨발을 활는 조개  
바닷물을 들이키는 조개  
꿀렁꿀렁 위장의 물길 깊어지면  
진주가 영그는 조개

영어를 강의하며 한국어를 배우며  
세 아이를 키우는 매리덴 에스 사리오  
작은 어깨 들썩이며 빙그시 웃는  
언제나 수면이 부족한 그녀

바람물결 출렁이며 무지개 펼치는  
조개 떼 소란한 그녀의 바다

보리라고 부르겠다

연두빛 손톱에서  
보리가 자라고 있었다

맨발의 이랑에는  
하이퐁의 바람이 불었다

말바우 시장 옆 한약방에서  
하이퐁의 보리밭을 일구는 그녀  
그녀의 일당 삼 만 원은  
꿈결로 드나드는 하이퐁에서는  
사십 팔 만 원

도깨비바늘처럼  
한 남자의 주머니에 묻어  
들어온 그녀

깜부기 같은 악몽들  
서투른 풍습으로 물리치고  
하이퐁의 보리꽃을 그리는 그녀  
서릿발 속에서도 뿌리를 내려가는  
연두 빛 손톱이 예쁜 그녀

보리알 같은 눈동자, 보리가시  
같은 속눈썹, 푹푹한 푸른 입술  
손대면 부서질 듯 보릿대 같은 몸

나는 너를  
보리라고 부르겠다



류소화

가파른 층계를 올라가면  
엄마 따라 이주해 온 소년이  
“몰라요” 를 반복하며  
극세사 이불 속에서 뒹구는 집

겨울바람이 송송 드나드는  
소화 씨가 세 들어 사는 이층 집

하얗게 흩날리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두 속에 집을 짓는 그녀  
고기볶음 달걀볶음 부추생잎 잘게 다져  
빈틈을 아우르는 그녀

꿇전에 들랑대는 목단강의 모음 사이로  
미끄러지듯 만두를 빚는 그녀의 손  
밀대에 눌러 눌러졌다 다시 오므라드는  
그녀의 한 겨울

만두 속에 책상을 들고 그녀의 아들과  
낮선 방언의 사전을 펼치면 스탠드 불빛 아래로  
민들레꽃처럼 웃음주머니 부푸는 만두들

가끔씩 가슴을 움켜쥐는 그녀  
이른 아침 층계를 내려와  
하루 내내 노동에 절은 두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캉캉한 층계를 다시 오르는 그녀

풀벌을 뒹구는 날들을 위하여  
부추 잎 같은 푸른 말들로 집을 짓는 그녀

JESSIE

— 잘 지냈어요?  
무심히 건네는 말에  
입꼬리 올리며 웃고 있는 그녀

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재 초급을 펼치고  
한 나절씩 쓰고 또 쓰는 그녀  
— 아파요 조용해요 말 안돼요  
도서관 풍경을 그려 보이며  
두 손으로 머리 감싸 쥐고 있는 그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히가세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뻑뻑하게 쓰여진 글자들 사이사이로  
가장 좋은 향기의 꽃이라는 SAMPAGVITA<sup>31)</sup>  
나팔꽃처럼 피어오르고

영한 번역기 두드려 찾아낸 말  
— 삶은 도전이고 희망이에요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활짝 웃고 있는 그녀

탁목조 나무 쪼듯 들려오는 한국어에  
—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 다시 한 번 말해 주세요  
또박또박 발음하며 웃고 있는 그녀

흐르는 소리들 불러 모아  
자갈밭 일구어 가는 그녀의 웃음  
소리 없이 소리 너머 웃고 있는 그녀

---

31) 삼파기타. 필리핀의 국화

민들레

필리핀 사람들끼리 말하는 소리

러시아 사람들끼리 말하는 소리

베트남 사람들끼리 말하는 소리

중국 사람들끼리 말하는 소리

새들 지저귀는 소리

햇살 부딪히는 소리

빗방울 듣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돌 틈 사이 물 흐르는 소리

그녀의 인사

- 일기에서

어머니 나는 정말로 미안합니다  
무슨 일어나다 어제. 나는 부끄러워요  
남편과 어마싸워. 나 데모네……  
나는 있습니다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 항상 필리핀 가작 푸것히포요.  
어마 다시 미안합니다 사랑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나는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싸웠어요  
- 한국말도 못하는 저런……니 나라에 가버려.  
시어머니 bad language 폭풍 같았어요  
나는 항상 내 고향의 가족 보고 싶어요  
-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서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불투명 수채화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한국어를 짓이겨  
멈칫멈칫 그림을 그리는 나제스다<sup>32)</sup>

물 한 방울에 타슈겐트의 안부를 담고  
붉은 색 물감을 풀어헤치는 그녀

낮선 도시의 안개들이  
건조한 물감 더미에 엉키어  
짓이겨지는 검붉은 화폭

— 눈물 조금 흘러요 가슴 많이 아파요  
눈개 속에서 그리는 불투명 수채화

푸른 부리의 새 한 마리  
느린 미학의 화폭으로 날아들어  
드라스트브이체, 아살롬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天眞을 찾고 있는 나제스다

---

32)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

코가 빛나는 건이

코가 오뚝한 건이  
코 잘난 거지 없단다

어떡하나  
귀 잘생긴 거지 있고  
귀 잘생긴 부처님 보았는데  
한 귀가 없는 건이

스무 살의 사오매, 사랑니 넘 아파서  
뱃속 아이 3개월 때 마취시켜 발치했는데  
아이 낳고 얼굴 찬찬 요리조리 살피더니  
- 우리 아이 왜 이래요?

하얼빈의 빨간 베개, 빨간 이불에  
엄마가 흥얼이는 콧노래에  
눈 감고, 웃음 감고, 손가락 감고  
어디만큼 웃음을 던져주고 있는지

한 귀가 이쁜 건이  
방 가득 코가 빛나는 건이  
하르하르 웃음소리 웅얼이 큰 건이

## 맹랑한 꽃송이

나뭇가지에 솟아오르는  
맹랑한 꽃송이, 봄이 오는 소릴 듣는다

웅송그리며 도란거리며 마침내 궁금한 계절  
꽃술들 안테나 치켜든다  
인동의 한 고비 훌훌 떨치고  
매화꽃, 거기 화들짝 웃고 있다

여든 살 할매 얼굴에 피어나는 복주름 속에  
마흔 살 여자 눈가에 스며드는 꽃주름 속에  
열여덟 살 그녀와 열여덟 살 그녀가  
한 올의 푸른 잎도 걸치지 않고  
송이송이 웃음꽃 피워 올리고 있다

동화

—그 여자

오동나무 책 받침대 위에  
붉은 사과 한 개 똑 떨어진다

그 여자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동화를 읽는다

사각 사각 사각  
커다란 사과<sup>33)</sup>는 우산이 된다

소나기가 쏟아진다  
나비도 악어도 코끼리도  
사과 우산 속으로 모여든다

나의 우산이었던 여자  
사과 같은 그 여자  
오래된 슬픔의 여자

---

33) 다다 히로시의 그림동화 책 이름



## 참고 문헌

### <기본 자료>

- 김선우, 『내 혀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 창비, 2000.  
김선우, 『도화 아래 잠들다』, 창비, 2003.  
김혜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문학과지성사, 1985.  
김혜순,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김혜순, 『한 잔의 붉은 거울』, 문학과지성사, 2004.  
나희덕, 『그 말이 입을 물들였다』, 창작과비평사, 1994.  
나희덕, 『반 통의 물』, 창비, 1999.  
나희덕, 『어두워진다는 것』, 창작과비평사, 2001.  
나희덕,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창비, 2003.  
나희덕, 『사라진 손바닥』, 문학과지성사, 2004.

### <참고 논저>

- 김미현, 『판도라 상자의 문학』, 민음사, 2001.  
김수이, 『서정은 진화한다』, 창비, 2006.  
김용희, 『페넬로페의 옷감 짜기』, 문학과지성사, 2004.  
김혜영, 『메두사의 거울』, 부산대출판부, 2005.  
신덕룡,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1999.  
신덕룡, 『생명시학의 전제』, 소명출판, 2002.  
안혜련, 『페미니즘의 거울』, 인간사랑, 2001.  
정현중·김주연·유평근 편, 『시의 이해』, 민음사, 1981.  
정끝별, 『오륙의 노래』, 하늘연못, 2001.  
정끝별, 『천 개의 혀를 가진 시의 언어』, 케포이북스, 2008.
- 마리아 미스 · 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 · 이난아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00.  
엠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2001.

- 강연호, 「생태학적 상상력과 현대시」,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3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 김민숙, 「몸, 경계에서 노래하기」, 『겨레어문학』, 겨레어문학회, 2006.
- 김혜순, 「페미니즘과 여성시」,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하나의문화, 1998.
- 김창근, 「현대시와 포스트 모더니즘」, 『동의어문논집』 11집, 1998.
- 엄경희, 「상처받은 ‘가이아’의 복귀」, 『한국근대문학연구』 4권 1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3.
- 윤대선, 「‘너’와 ‘나’의 삶의 공동체를 위한 페미니즘의 기원과 해석」, 『해석학 연구』 20집, 한국해석학회, 2007.
- 이귀우, 「에코페미니즘」, 『여성연구논총』 13호, 서울여대, 1998.
- 이귀우, 「생태담론과 에코페미니즘」, 『새한영어영문학』 43권 1호, 새한영어영문학회, 2001.
- 이영섭, 「현실의 불모성과 존재의 길 찾기」,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 이찬규, 「르네 샤르의 자연과 생태학적 상상력」,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2집,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4.
- 이혜원, 「백석 시의 에코페미니즘적 고찰」, 『한국 문학 이론과 비평』 2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 이희경, 「여성시의 생태적 상상력」, 『한국언어문학』 제50집, 한국언어문학학회, 2003.
- 조영미, 「신화를 모티브로 한 시 쓰기」, 『한민족문화연구』 1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4.